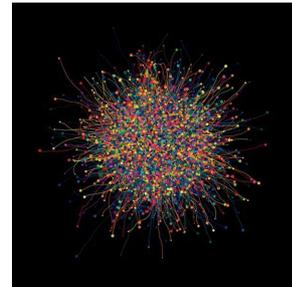




## 제35회 서울대학교 데이터마이닝 캠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와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고등학생을 위한 제35회 데이터마이닝 캠프를 개최합니다.

오늘 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와 제품 생산 현장이나 도로, 교량 등에 설치된 센서들의 사물인터넷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텍스트나 영상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인 빅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빅데이터는 정부나 지방자치기관의 정책 결정에, 민간 기업의 재무, 소매, 마케팅, 제조 최적화에, 그리고 의학, 생명과학 등에서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마이닝은 빅데이터로부터 액션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과정으로서, 확률 및 통계학,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방법론들을 사용합니다. 현재 이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매우 높으며, 향후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므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은 21세기 가장 유망한 직종 리스트에 데이터마이닝을 5위에 올렸으며, MIT에서 발간되는 테크놀로지리뷰지는 향후 떠오르는 기술 분야로 데이터마이닝을 1위와 9위에 올렸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와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는 대학진학을 앞 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래형 연구응용 분야이자, 학제 간 분야인 데이터마이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언론정보학, 심리학, 의학, 생명과학, 약학, 컴퓨터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경영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시고,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 홈페이지에서도 소개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짚어질 인재들을 위해 마련된 서울대학교 데이터마이닝 캠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21일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장 이 영 섭  
 서울대학교 교수 조성준